

세션 1. 평화교육

여성 평화교육: 중요성과 기회

카디아 마이가 디알로

유네스코 말리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말리

세계여성평화 콘퍼런스에 함께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엔 산하의 과학 및 교육 기관인 유네스코의 말리 대표부 사무총장으로서 이 시간에 여성 평화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세계에는 늘 전쟁과 혼란, 폭력이 존재했고, 팬데믹 이후 글로벌 위기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은 이전보다 심한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폭력적인 문화에서 폭력을 목격하며 자라온 어린 소녀와 여성들은 쉽게 심리적, 육체적 상처를 입고, 이러한 억압은 여성들의 학습 능력과 사회적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평화교육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네스코 헌장은 바로 첫 문장에서 평화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장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즉, 평화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속적인 평화 실현에 있어 정부 간 정치·경제적 협정이나 조약은 일시적인 수단일 뿐이며, 지적, 도덕적 연대의 토대 위에서 상호 이해와 지식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점을 유네스코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평화연구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초기부터 평화교육과 평화연구, 평화운동 등의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지속적으로 사회악에 대항하고 현상유지를 타파하여 사회 변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평화교육은 폭력이 만연한 문화를 평화적인 문화로 전환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리는 2012년 이후 불안정과 분쟁을 겪어왔으며, 무장 단체의 북부 지역 점령으로 그 위기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말리는 프랑스의 두 배 크기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사람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주로 수도인 바마코로 이주해오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375,000명의 이주민이 발생해 총 인구가 2,929,3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평화 협정에 대한 여성과 청년들의 이해 부족, 극단주의의 영향, 약한 국가적 존재감, 이전 분쟁의 원흉과 상처, 거버넌스의 문제, 문제해결과정에의 청년과 여성의 참여 부족 등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무장 강도, 온갖 종류의 밀매와 테러 공격 등 다양한 차원의 위기가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2/3 이상에 각종 무기가 확산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합니다. 우리는 빈곤과 분쟁을 근절하고 지구촌을 보호하며 인류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말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화 교육 프로젝트 지원의 일환으로, 말리 유네스코 클럽, 센터 및 협회 연맹(FEMACAU)은 평화와 사회적 결속, 유쾌함의 문화에 관한 교육 모듈을 구성했습니다. 이 모듈을 통해 콜리코로 지역 노스부구 코윈의 10~20세의 젊은이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보다 확대된 차원의 평화, 시민 의식, 유쾌함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50명의 청소년(남학생 127명, 여학생 123명)과 26명의 지역사회 및 종교 지도자들(대부분 남성, 마을 촌장과 고문, 직원 등), 4명의 연극 마스터 트레이너가 사회적 결속과 공동생활, 평화적인 갈등 해결, 평화의 문화, 연대 등과 관련된 주제로 교육받았습니다. 총 250명(남학생 127명, 여학생 123명)으로 구성된 5개의 단체를 통한 185건의 가정 방문이 1,19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청년들과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주말마다 두 번 꼴로 마을에서 열 여섯 차례의 원인 토론회와 열 두 차례 이상의 지역사회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수행된 마이크로 프로젝트는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교육이 국가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교육은 사회에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전쟁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연구의 진화, 전쟁을 예방하고 위기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집단적, 개인적 차원에서 평화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HWPL, IPYG, IWPG와 같은 NGO와 시민 사회의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평화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더 희망찬 미래를 선사하기 위해 정의와 평화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강력한 평화교육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모든 사람의 존엄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